어느 곳을 쳐다봐도 붉은 색 밖에 보이지 않았다.

붉은 깃발, 붉은 망토,

붉은 동료, 붉은 피.

오른손에 든 붉은 검.

이 검도 원래는 흰 색이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검은 색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종전이다!"

수십 년 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났고, 그 끝은 허무만을 가져다 주었다.

"밝은 색으로 도색해주세요."

단순히 전쟁을 잊기 위해 한 일은 아니었다.

붉은 색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좋은 검이네. 잠시만 기다리쇼."

장인은 분주하게 검을 살폈고, 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기계에 검을 넣더니 금새 색을 바꾸어 왔다.

"이 색은 어떤가? 은은한 녹색을 섞었다네."

"나쁘지 않네요."

붉은 색과 대비되는 색이어서였는지, 붉지 않은 색이어서였는지, 그 이후로 나는 녹색을 쭉 즐겨 사용했다.

딘 아일. 내 이름이다. 내가 무슨 존재인지는 나도 모른다.

단지 오래도록 늙지 않았고, 인간들과 닮았다는 것 정도밖에 단서가 없다.

어릴 적 기억같은 것도 남아있는게 없다.

그렇게 난 누가 붙여준 건지 모르겠지만, 떠돌이 용병 드위르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곳저곳 여행을 떠났다.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칠 때였다.

딘의 인생에 잠시나마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던 건 이 때 부터였다.

십대 후반 남짓한 소년이었다.

소년이 난데없이 달려와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제발 말과 투구를 빌려주세요!"

조급한 소년에게 의아해하며, 딘은 이유를 물었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니?"

"아버지가 기사 놈들에게 모욕당했어요. 기사 토너먼트에 몰래 참가해서 그놈들에게 꼭 복수할 거에요!"

소년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딘은 잠시 생각한 후, 말에서 내리며 여분의 투구를 건네주었다.

허리에 차고 있던 검도 함께 건네며 말했다.

"그럼 이 검도 가져가. 검 없이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색이 어느 정도 바랜 녹빛의 검이었다.

"잠깐! 너 이름이 뭐니?"

"베르트랑 입니다!"

소년은 말을 타고 재빠르게 토너먼트장으로 향했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진 녀석이야."

딘은 천천히 베르트랑이 간 토너먼트장을 향해 걸어갔다.